

문화광장



장수명

마주보기출판사 대표·동화작가

“산 사람이 먼저지, 죽은 조상이 먼저야? 맞잖아 내말이지?”

몹시 날이 선 목소리다. 나는 고개를 들고 목소리를 쫓아갔다. 나뭇잎이 아니라, 카페에 있는 다른 이들의 시선도 그 테이블로 향했다. 내 나이는 되어 보이는 여자 두 명과 비슷한 연배쯤의 남자 한 명이 앉은 테이블에서 오고가는 목소리였다. 추석명절을 보내면서 마음이 상한 모양이다.

“앞으로 우리 애들은 제사 안 지내도록 할 거야.”

“그래도 조상제사를 어떻게 안 모

불편한 기억의 밤

서….”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달래듯이 말했다.

“어디서 물어보니까, 제사를 한 날로 모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송곳 같은 여자 목소리에 남의 집 일이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나는 문득, ‘코코’라는 영화가 생각났다. 작년에 엄청 뜨겁게 사랑받았던 영화였고, 오래도록 감동과 함께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영화였다. 영화는 매년 10월말부터 11월 2일까지 ‘죽은 자의 날’이라는 멕시코 국경일(멕시코 명절 같은)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다. 이 날(죽은 자의 날)은 멕시코 가정이나 공원 등에 제단을 만들고 음식을 쌓아 놓으며 가족 친지들끼리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행사를 치르는 날이다. 마치 우리나라 제사와 비슷하다. 이 영화는 다

루기 어려운 사후세계를 애니메이션이라는 장치로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섬세하게 연출한 작품이다.

영화 ‘코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후 세계와 제사의 의미를 다뤘기 때문이다. 보는 내내 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은 영화였고,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영화였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계승해 나가야 할 것들에 대한 환기를 시켜 준 영화였다.

영화 ‘코코’의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장면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말할 것이다. 가족이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해서 ‘죽은 자의 날’ 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이제 사후세계에서조차도 소멸해야 한다면 슬픔에 차 있던 그 헥토르 친구. 그는 헥토르와 미절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나 순식간에 소멸해 버리고 말았다. 그 장면은 영화 ‘코코’

의 전체 주제이기도 한 장면이었다.

‘이승에서 기억해주는 마지막 사람이 사라지는 날, 저승의 영혼도 영원히 소멸해 버리고 만다’는 영화 전체 주제인 장면이 문득문득 생각난다.

옛 사람들은 조상을 잘 모시면 후손도 잘 된다고 했는데… 점점 사회가 변해가고 풍습이 변해가고 사람도 변해가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씁쓸했던 그 날이 생각나서 못매를 맛을지도 모르지만 나의 속내를 열어내 보인다.

번거롭고 죽어도 싫을 일이면 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 날이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고 하고, 새로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문화라는, 풍습이라는, 우리의 뿌리라는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무형의 자산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되새겨 보았으면 참 좋겠다.

뉴스-in

국감자료 보도 “오해 살라” 발빠른 대응

도, 체납액 설명자료 배포

○…제주도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오해할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신속히 배포하며 발빠른 대응.

도는 23일 제주도의 고액체납자 1인당 체납액이 741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국정감사 자료 보도와 관련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75명 352억원이며, 이중 6개 골프장이 187억원으로 전체의 53.1%를 차지한다고 해명. 이어 골프장을 제외하면 1인당 평균체납액은 3518만원으로 전국 평균이하로 분석된다고 설명한 뒤 체납처분 활동을 소개. 오은지기자

‘더큰내일센터’ 관심 고조

○…24일 개소식을 갖고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교육훈련에 돌입하는 ‘제주더큰내일센터’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고조.

특히 최종합격자 100명 중 도내 75%, 도외 25%는 물론 연령 대별로도 10대는 2%인 가운데

20대가 75%로 가장 많고, 남녀 성별로는 여성이 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분석.

제주더큰내일센터는 초기 6개월 동안 프로젝트 기반교육 및 수행역량 향상을 위한 문제해결 방법론 교육, 디자인씽킹과 함께 직무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 교육이 진행될 예정. 조상윤기자

내년 생활임금 결정 관심

○…제주도교육청이 오는 25일 오전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간제 근로자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관심. 앞서 제주도가 지난 10일 생활임금위 2차 회의를 열고 시급을 1만원(3.09% 인상)으로 확정하면서 도교육청의 생활임금도 이 선을 넘을지 주목.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확정되면 연인원 기준 약 700명이 대상에 포함된다”며 “심의의안은 확정됐지만 회의에서 다시 논의돼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 김지은기자

사설

태풍 길목 제주, 발작물 피해대책 세우자

태풍이 제주를 강타하고 몰려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는 강풍과 함께 많은 비를 뿌렸습다. 보름 전에 제주를 휩쓴 제13호 태풍 ‘링링’보다도 강수량이 훨씬 많은 데다 바람도 강했습니다. 특히 가을장마에 이어 태풍까지 잇따라 들어닥치면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타파’는 기록적인 강풍과 폭우로 인해서 많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부터 22일 오후 4시까지 한라산 어리목 698.5mm를 비롯해 윗세오름 632.5mm, 산천단 564mm, 송당 441.5mm, 성산 299.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었습니다. 22일 오후 4시 기준 최대순간풍속은 지귀도 40.6%, 국가태풍센터 31.6%, 성산 30.4%를 기록했습니다. 태풍이 물고 온 강한 비바람으로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무엇보다 가을태풍이 연거푸

달치면서 농작물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을장마에다 태풍 ‘링링’으로 할퀴고 할퀴다. 보름 전에 제주를 휩쓴 제13호 태풍 ‘링링’보다도 강수량이 훨씬 많은 데다 바람도 강했습니다. 특히 가을장마에 이어 태풍까지 잇따라 들어닥치면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1460ha, 감자 1020ha, 당근 1005ha, 양배추 998ha, 월동무 938ha 등 모두 7116ha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타파로 월동채소류는 거의 속대밭이 됐습니다. 감자·당근·양배추·브로콜리 등 월동채소 대부분이 물에 잠기거나 강풍에 휘둘리면서 사실상 폐작 위기에 놓였습니다. 태풍의 길목인 제주지역의 발작물은 태풍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태풍이 잦아지고 그 위력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주형 발작물 피해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혼자사는 노인 돌봄·복지서비스 구축을

제주도내 혼자 사는 노인 10명중 1명 이상이 치매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치매 문제가 특정개인이나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 해법을 서둘러 마련해 나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도광역치매센터가 지난 20일 발표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치매 등 혼자 사는 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4745명중 11.4%인 542명이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8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엔 비율이 16.6%, 65~69세는 13.2%에 이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치매 고위험군은 정신행동 증상 발현 비율도 정상군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치매 고위험군에 속한 혼자 사는 노인들의 망상 증상 발현율은 10.5%로 정상군(3.5%) 대비 차이가 큼니다. 이는 노인들이 정신

행동 증상을 처음 보일 경우 치매로 이어질 개연성이 그만큼 높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혼자 사는 노인 중 40.5%는 우울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예방 프로그램과 적절한 치료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고위험군의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과 돌봄 등 복지 서비스를 연계시켜 나가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지원체계 시스템 마련도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치매는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고통과 부담이 너무 큼니다. 사회 문제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하면서 전국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차원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 고

김도형(주식회사 케이지오 대표) 아버지 김해김공 찬중(前 고산농협 조합장·향년 78세)께서 서기 2019년 9월 22일 18시 21분경에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9월 24일(화)

▶ 발인일시: 2019년 9월 25일(수) 오전 7시

▶ 발인장소: 한림정남장례식장 특분향실

▶ 장 차: 양지공원

부 인 서정순

아 들 김도형 며느리 강유미

딸 김미래 사 위 박진영

수미 김원찬

미정 유승주

※ 연락처 : 김도형 010-3699-8684 박진영 010-2689-5753 김원찬 010-2992-9739 유승주 010-7305-7673

부 고

현영진(사계절농수산유통 대표·前 정방라이온스 회장) 어머니 밀영박씨 정규(향년 90세)께서 서기 2019년 9월 22일 오전 6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9월 25일(수)

▶ 발인일시: 2019년 9월 26일(목) 오전 7시 30분

▶ 발인장소: 한빛장례식장 연꽃분향실

▶ 장 차: 도순동 가족선영

아 들 현영진 며느리 김안순

영식 한옥자

영천 장경순

영찬 김정임

은상 강민채

딸 현영자 사 위 김창순

영순 양상돈

영희 이영철

손 자 현승철 손 부 이선영

재성 우희경

※ 연락처 : 현영진 010-3697-2216 현영식 010-4693-5400 현영찬 010-9736-4300 현영자 010-2690-6350 현영천 010-8882-9711 현은상 010-7726-7625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 주 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기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독성을 미국식품의약국 FDA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성명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충2리 용암동굴계 거문포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계분 판매합니다. (배 달 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강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 064-796-6947

핸드폰 :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제주시 한림읍 명상로106-7)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크게는 100%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4.99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 표: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